ABS, 중국 오피 본격적 입질 시작

SM 가격하락 기대로 구매 부진 ... SM 가격 안정화에 따라 본격 구매

중국이 그동안 SM 가격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ABS 구매를 미뤄오다 더 이상의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서서히 구매의사를 밝히고 있다.

SM 가격은 FOB KOREA 기준으로 평균 2003년 9월 톤당 662달러, 10월 678달러, 11월 731달러, 12월 776달러로 상승했으며 2004년 1월 856달러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이후 2월 823달러로 하락하기 시작해 3월 77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중국 무역상들은 SM 가격이 2/4분기까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ABS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수입량을 크게 늘렸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국에 판매된 양은 2003년 9월 4만1784톤, 10월 3만9687톤, 11월 3만7737톤, 12월 4만1691톤으로 2003년 한 해 판매된 ABS 총 판매량이 40만3429톤의 40%에 해당하는 양이다.

중국은 2004년 1월에도 4만2638톤을 수입해 재고를 비축하는데 주력했으나 2월 3만3853톤으로 구매량을 크게 줄였다.

2월 구매량이 크게 감소한 이유에는 SM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함에 따른 ABS 가격의 동반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 구매상들이 ABS 구매를 최대한 늦추려 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제품 무역 관계자에 따르면, “2월 구매 물량을 줄이면서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최대한 버티고 있는 중국 구매상들이 3월 7일까지도 구매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었으나 3월8일 이후부터 구매의사를 밝히고 있는 곳이 점차 생기고 있다”며 “3월15일부터는 생산기업과 거래상들 간의 가격 조율이 이루어져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내 생산기업들은 판매가격으로 평균 1050-1070달러를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 구매상들은 1020-103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3/16>